

2016.06.18.

계승범 (2012). 조선의 18세기와 탈중화 문제.

노가연

## 1. 배경

조선의 18세기에서 '근대'의 단초를 찾기

- 18세기 조선은 '중흥의 시대'
- "외부의 보편적 권위를 자국화하거나 거기에서 이탈해 [상대화, 객관화]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려는 사조는 전통시대의 왕조국가들이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국민국가(nation-state)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거친 단계"

### → 脫中華 움직임에 대한 연구가 필요

- 서구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조선의 경험을 세계사적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한 기존 연구 현황

- '탈중화' 자체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음
- 개념 정의가 불분명: 어떤 '중화'를 말하는가?
  - 본 논문의 목적: 조선의 탈중화 문제를 정치적 vs. 문화/지성적인 면으로 나누어 고찰 → 조선의 18세기 상을 통시적/거시적으로 조명하고자 함

## 2. 정치적 탈중화

북벌론 - 정치적 탈중화인가?

- 국내정치용: 북벌은 현실 군사적,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음 - 국내정치적 혼란을 타개하고자 했던 효종의 대내적 의도
- 실제로 효과적: 북벌 담론을 생성, 유통함으로써 조선왕조의 레종데트르를 재확립하고 삼전도 항복 이후 흐트러진 민심을 규합 → 정치적 탈중화 움직임이 아님
- 예외: 칭제상소 1건, 용어 사용 문제 (청 연호 비사용, 조천→연행 등) → 그러나 새로운 중화를 거부하고 한족의 옛 '중화'로 귀속되는 움직임으로 탈중화로는 볼 수 없음

조선 양반지식계층의 문명관

- 춘추의리 화이사상: 16세기 주자학의 번성 (이황, 이이, 조헌 등), 광해군 폐위
- 보편적 중화문명: 명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강대국의 몰락이 아니라 인류 문명 그 자체의 붕괴

## 3. 문화/지성적 탈중화

1) 조선후기의 천하관, 세계관: 전환기적 한계

- 서학과 서양지도의 전래 - 객관적 지리 지식이 유입된 후에도 성리학적/전통적 천하도가 18세기 중엽까지 공존
- 홍대용 <의산문답> - 얼마나 일반적인 생각이었는가?

2) 고대사, 북방사 등 자국사에 대한 관심

- 고조선, 고구려, 기자 등: 그 자체로 자국사에 대한 주체성/자긍심 보다는 反淸적 의도가 강함
- 조선의 중화적 정체성을 고대의 은, 주 시대로 연결한 중화계승의식의 산물
- 권위의 바탕을 자국이 아닌 타자(한족의 중화문명)에 둔 것

### 3) 조선중화주의

- 현실에 토대를 두지 않은 관념상의 의식 (남송의 주자학 - 조선후기의 성리학) - '중화'의 3대 요소 (지역,종족,문화) 중 문화의 측면만 분리해 내어 강조한 것 (축소된 중화의식)
- 유교문명을 주체적으로 자국화한 것이 아닌, 그 자부심은 조선의 문명을 한족의 문명과 동일시함으로써 발생한 것 - 주체적 자존이 아닌 조선문명을 중화에 귀속
  - ➔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은 중화라는 타자의 권위에 의지해서만 가능했으며, 조선을 중화로부터 분리시킨 결과가 아님 → 탈중화가 아님
- \*일본과의 대조

### 4) 북학론

- 북학론을 탈중화의 증거이자 근대성,민족의식을 가진 사조로 보는 연구시각
- 그러나 1) 북학론이 과연 화이사상을 극복했는가? 2) 주류를 점할 정도로 유행/영향력이 있었는가? - 존명의식으로부터는 이탈을 시도했으나 한족중화 자체를 상대화/객관화하거나 중화질서에서 이탈한 것은 아님 -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'이제 중화가 된 청으로부터 배우자'는 것임으로 더 귀속됨 → 탈중화가 아님
  - ➔ 조선전기 명을 배우려는 태도 ~ 18세기 후반 청을 배우려는 태도 ~ 청을 중화로 인정하고 의지한 19세기의 위정척사론은 모두 일맥상통

#### \*고려 이후 중화 인식의 변화 과정

- 고려인들은 3대 요소 가운데 종족을 제외한 채 지리와 문화만을 따져, 책봉국이 바뀌는 것에 도덕적/이념적 부담을 느끼지 않았음
- 조선전기 명 질서 하에서는 3대 요소가 모두 일치하는 상황이 되면서 굳어지게 됨
  - 16세기: 명-조선 관계가 (거역할 수 없는 절대관계인) 君父-臣子 관계로 재정립
  - 17세기: 명의 몰락은 국가지배이념의 위기 - 자구책으로 조선중화의식
  - 18세기: 청의 중화를 조금씩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 (e.g. 북학론) → 고려시대 화이관의 부활로 볼 수 있음

### 4. 맺음말

→ 18세기의 조선의 현상들을 탈중화로 보기는 어려움: 청의 새 중화질서를 거부하는 태도가 조선의 독자적 자아의식을 고취하는 방식보다는 한족이 구축한 옛 중화에 더욱 연연하며 그에 몰입하는 방식으로 표출 - 명,청을 모두 상대화하고 조선의 자국의식을 갖추는 탈중화는 나타나지 않음

#### 앞으로의 과제

- 1)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탈인지 명확한 정의 필요
- 2) 북학론과 위정척사론 일맥상통
- 3) 탈중화의 조짐이 조금 있었다더라도 일반화 경계
- 4) 국가 차원에서는 정치적 탈중화 움직임이 전혀 없었음
- 5) 명-청 교체기 비슷한 고민을 겪은 일본,베트남과의 비교 연구 필요
  - ➔ 통시적,비교사적 조망이 필요
  - ➔ 18세기의 '부흥'은 미래지향적이 아닌 과거의 가치를 방어적으로 재정비하는 부흥이었다